민주 기초단체장 전략공천제 도입

6·13 지방선거기획단 회의
여성·청년공천 배려 차원
후보 검증 靑 인사기준 반영
성범죄·병역·탈세 조사

"파이팅~"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이춘석 사무총장, 이재명 성남시장, 양향자 여성위원장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필승 여성 전진대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공천에 전략공천제를 도입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24일 오전 회의를 열어 기초단체장 후보에 전략공천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기로 하고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백혜련 대변인이 전했다.

백 대변인은 "(기초단체장) 전략공천제를 도입하는데 의견일치를 봤다"며 "전략공천 방법과 비율에 관해선 좀 더 논의를 한 뒤 최종 결정에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해선 (전략공천이) 어차피 (도입)돼 있고 기초단체장 선거 등에선 없었는데 기초단체장 선거를 포함해 전략공천제를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방선거기획단장인 이춘석 사무총장은 이날 광주일보 기자와 만나 "여성과 청년공천에 관한 배려 규정이 당헌·당규에 있어서 전략공천이 필요하다는데 의견 일치를 본 것"이라며 "특별히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기획단장은 "경선 과정에서 이전투구 양상이 전개돼 당이 직접 개입할 수밖에 없거나 하는 지역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부정부패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현역 시장·군수가 공석인 지역의 경우 전략공천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주목된다. 현역 단체장이 없는 상황에서 경쟁 과열로 혼탁한 경선이 실시될 경우 또다시 재보궐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차원으로 해석된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에 기초단체장 자리가 비어있는 경우는 무안·해남·보성군 등이 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날 또 공직선거 후보자 자격심사 및 도덕성 검증 기준에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 운전 등 이른바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7대 원칙을 일부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성 범죄와 관련, 성폭력과 성매매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예외없이 후보자 검증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키로 의결했다.

후보자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와 10년 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탈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조세 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키로 했다. 다만, 부동산투기나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은 당에서 검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백 대변인은 "해당 검증기준에 걸리면 공직 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간판)으로는 예비후보 자격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의원·당원·국민 개헌 여론조사

민주당 내달 1일 당론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초에 개헌안을 확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일반 국민과 당원,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소속 의원 121명 전원을 대상으로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조사 중이다.

한 재선 의원은 24일 "원내부대표단이 전화해서 권력구조를 대통령제와 내각제 중 무엇으로 할지, 총리 인사권을 어디에서 행사할지, 분권 문제는 어떻게 할지 등을 물어봐 답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개헌 문제와 연동된 선거구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도 이달 말까지 각각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 여론조사는 여론 조사기관에 의뢰, 전국 성인남녀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리당원의 경우 실제 당비를 낸 70만명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회의원과 당원, 국민 대상 여론조사가 나오면 2월 1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은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2월 중으로 국회 논의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개헌안 마련을 통해 민주당이 실제 개헌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차원도 있다는 분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우원식 "법안 처리 지연 방치 안돼"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기능 폐지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4일 자신이 최근 대표 발의한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기능 폐지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법사위의 법안 처리 지연은 심각한 상황이다"며 "민생법이 법사위에 가로막히는 것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대 국회 전체 법안 처리율이 25.6%인데 비해 법사위 고유법안 처리율은 15.7%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역사교과서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은 법사위에 회부된 후 369일 동안 통과되지 못했고,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인 55건의 법안은 심사가 무한 보류 중"이라며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만 없었어도 이미 법률로서 생명을 얻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의한 바 있다"며 "본인의 소신을 담아서 낸 만큼 법사위원들을 설득할 것이라 믿는다"고 압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앞서 2015년 4월 10일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의원 10명과 함께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국회입법지원처를 신설해 체계 자구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광주·전남선관위 지방선거체제 돌입

금품수수 등 3대 중대범죄 단속…불법 여론조사 전담팀 구성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천관련 금품수수 등 3대 선거 중대범죄 단속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지방선거 관리에 돌입한다.

올해는 불법 선거여론조사 전담팀 꾸리는 등 선거철이면 고개를 드는 가짜뉴스와 불법 여론조사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광주시선관위와 전남도선관위는 24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관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하고, 완벽한 선거관리 준비에 들어갔다"며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다.

광주시선관위 최근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선거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광주'로 정하고, 국민이 직접 개표사무를 참여하거나 개표현장을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지역 363여곳의 투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투표편의 실태를 점검하고, 부득이 1층이 아닌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1층에 임시기표소도 운영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유권자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을 대상으로 투표소 순회차량을 지원한다.

또 정치관계법 및 각종 선거사무에 관하여 유권자, 정당, 후보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신속하게 안내해주는 선거안내센터(문의 1390)를 설치한다.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등 '3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 단속역량 집중 및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가짜뉴스 등 사이버선거범죄 단속을 위한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 운영하고, 불법 선거여론조사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떳다방'식 비전문 여론조사 업체의 난립도 막는다.

전남도선관위도 최근 도위원회 간부, 22개 시·군위원회 국·과장 및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지방선거 관리대책 회의'를 했다.

전남도선관위의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가 아름다운 선거를 통한 행복한 우리 전남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한 선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링' 오르는 국정원법 개정안

31일 정보위 공청회…대공수사권 이관 등 격론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구조적인 개혁을 명분으로 내놓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다음주에 예정된 공청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공론의 장에 오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을 다루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보위 관계자는 "국정원법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안이기 때문에 절차상 공청회가 필요하다"며 "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이 뚜렷해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이자 정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앞서 지난 15일 국정원법 개정안(안보정보원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법안과 국정원이 같은 해 11월 자체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 법안을 모두 아우르는 동시에 정부·여당의 국정원 개혁 의지를 포괄적으로 반영했다. 국정원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85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가 사실상 '국정원 해체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공청회에서도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국정원 개혁을 위한 조치는 수십 년 동안 논의돼온 쟁점"이라며 "충분히 토론하고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보위는 애초 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상임위 내 '국정원 개혁소위원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논의하기로 했으나,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위 구성 계획은 좌초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전체회의에서 여야 동수의 위원으로 국정원 개혁소위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세부 내용은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에 맡겼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소위원장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서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국정원법 개정안도 개혁소위 대신 기존 법안소위에서 심사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이 난 상태다.

정보위 관계자는 "개혁소위 대신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가동하기로 했다"며 "좋은 뜻으로 개혁소위를 만들자고 했는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일단 좌초된 대로 놔두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26
	국제한국어교원학과	2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10
사범	유아교육과	2
예능	음 악 학 과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7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10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 6(토) ~ 1. 9(화)
- 전 형 일 : 2018. 1. 16(화)

편 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일반편입(3학년)	정원외 학사편입(3학년)	정원외 유치원교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	○
예능	음 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 8(월) ~ 17(수)
- 전형일 : 2018. 1. 23(화)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 (주·야)	30학점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 (주·야)	60학점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 8(월) ~ 1. 17(수)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8. 1. 23(화) 오후 2시 30분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8. 1. 26(금) ~ 2. 2(금)
②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8. 2. 6(화) 오후 2:30
일반대학원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	2018. 2. 6(화) 오후 2:40
	석사	신학과(Th.M.)	○○	2018. 2. 6(화)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M.Ed.)	○	2018. 2. 6(화) 오후 2:4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믿음이 있는 대학·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